

선양낭포암의 임상적 특징 및 치료결과

한충민*, 송치원, 박진노, 김기원, 한지연, 조석구, 강진형, 박석영, 홍영선, 김훈교, 이경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목적 선양낭포암은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타액선 종양의 10%정도를 차지하고 소타액선 종양 중에서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이다. 선양낭포암은 일반적으로 성장이 완만하며 치료후 다발성 재발이 빈번하고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소재발이나 원격전이를 잘하지만 이경우에도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특이한 임상경과를 가진 종양이다. 그동안 두경부영역의 선양낭포암의 빈도와 예후에 관한 연구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선양낭포암의 빈도와 예후에 대한 연구는 없었기에 연구자들은 종양의 위치, 병기, 치료방법등에 대하여 임상 및 병리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방법 1983년 1월부터 1999년 7월까지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7개병원(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성바오로병원, 성빈센트병원, 성가병원, 성모자애병원, 대전성모병원)의 의무기록상 조직학적으로 증명된 선양낭포암으로 진단된 환자 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적 전체 49례중 남자 23례, 여자 26례로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며 14세에서 75세까지 분포하였고 평균연령은 50세 였으며 50대가 14례로 가장 많았다. 연령에 따른 생존율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50세미만과 이상으로 나누어 알아본결과 생존율의 영향은 없었다. 평균 생존기간은 94개월이었고 남자 92개월, 여자 95개월이었으나 두 군간에 통계학적 차이는 없었다. 원발 부위에 따른 분포를 보면 주타액선이 20례, 소타액선이 18례, 폐가 5명, 누선 3명 기타 2명으로 타액선에 주로 분포하였다. 주타액선에서는 이하선에 9례, 악하선에 9례, 설하선에 2례였고 소타액선에서는 상악동 및 비강내에 13례, 구강 및 구순에 1례, 기관에 3례, 귀에 2례였다. 주타액선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95개월, 소타액선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93개월, 폐의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94개월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다. 병기별로는 제1,2,3,4병기가 각각 10,16,11,12례이었고 18례에서는 수술만 시행하였고 18례에서 수술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수술만 받은 경우는 대부분 제 1,2병기였으며, 방사선치료만 받은 경우는 대부분 제 3,4병기였다. 항암치료는 대개 재발후 시행하였다. 재발은 19례(38.8%)에서 관찰되었으며 13례에서는 원발병소에 재발 하였고, 6례에서는 원격전이 하였다. 원격전이 부위는 폐가 3례로 가장 많았다.

결론 선양낭포암은 연령과 성별에 따른 예후의 차이는 없으며 주로 타액선에 분포하며 50대에 호발하며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종양이며 대개 원발병소에 재발하고 원격전이로는 폐전이가 가장 많았다. 선양낭포암의 조직학적 type이나 grade가 원격전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확인할수 없었다.

위장관 평활근육종의 예후인자

이세훈*, 차희정*, 나일일, 김지현, 김종재*, 허대석, 방영주, 김노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해부병리학교실

배경 위장관의 선암, 림프종에 비해 빈도가 적은 육종(평활근육종)의 임상상이나 예후인자에 대한 연구는 국내나 국외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한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위장관 평활근육종의 자연력, 임상상과 예후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1984년부터 1998년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조직학적으로 진단된 위장관 평활근육종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진단당시의 나이, 성별, 주증상, 활동도(ECOG), 원격전이여부, 치료방법 등의 임상적 변수와 조직분화도, 원발종양의 위치와 크기, 세포분열지수, 면역조직화학검사 등의 병리학적 변수를 조사하였으며 생존여부 및 재발여부를 추적조사하였다. Kaplan-Meier법으로 생존률을 구하였으며 예후인자분석에는 로지스틱법 및 콕스비례위험모델을 사용하여 단변수분석 및 다변수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대상환자는 총91명으로 남자가 56명이었고 여자가 35명이었다. 진단당시의 중앙연령은 54세로 분포는 21세에서 94세까지였다. 장기별 분포는 2예(2.2%)가 식도, 37예(40.7%)가 위, 39예(42.9%)가 소장, 11예(12.1%)가 대장에 발생하였고 2예에서는 위와 소장에 동시에 발생하였다. 30예(32.6%)에서 진단당시 이미 전이가 있는 상태였고 그 중 15예에서 간전이와 있었고 11예에서 복막전이가 있었다. 치료는 전이가 있었던 20예를 포함하여 81예(89%)에서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이 중 60예(65.9%)가 근치적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했고 21예에서는 고식적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하였다. 근치적 목적으로 수술했던 60예 중 추적기간 중에 37예(61.6%)에서 재발했는데 그 중 7예가 국소재발만, 26예가 원격전이만 있었고 4예에서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동시에 있었으며 20예에서 간전이가 있었다. 종양의 크기를 알 수 있었던 83예 중 25예(30.1%)가 8cm 미만이었었고 58예가 8cm 이상이었다. 전체 환자의 중앙생존기간은 64.7개월이었고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중앙무병생존기간은 27.9개월이었다. 생존기간에 대한 단변수분석 시에는 전체생존기간에서는 활동도, 원격전이여부, 조직분화도가 유의한 예후인자였고 무병생존기간에서는 활동도, 조직분화도, 세포분열지수가 유의한 예후인자였으나 다변수분석 시에는 전체생존기간에서는 원격전이여부와 조직분화도가 유의한 독립예후인자였으며 무병생존기간에서는 조직분화도와 세포분열지수가 유의한 예후인자였다.

결론 한국인의 위장관 평활근육종은 성비에 있어 남자에게 더 많고 위, 소장에 주로 위치하며 진단당시에 이미 30%정도에서 전이가 있었다. 예후인자로써는 원격전이 여부, 조직분화도, 세포분열지수가 강력한 독립예후인자였다.